

保健 看護員의 活動

保健員과 一般病院에 근무하는
看護員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국립의료원 결핵관리소 金 蓮 玉

오늘도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소로 여러가지 사람들 틈에 끼여 서서 차례 오기를 기다린다. 남과 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일반 행정관청과는 달리 일종의 병원이라 보니 그 기다리든 퇴근시간도 일정치 못하다. 판 종합병원과 같은 때는 그날의 당번이 있어서 퇴근 시간만 되던 하든 일을 다 정리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퇴근 하기에 바쁘지만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여러가지 종류의 일을 하다보니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조그마한 테두리 안에서 한정된 일을 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능률을 100% 올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관리소는 1961년 9월 스칸디나비아의 원조 사업의 일부로 개조되어 결핵환자 치료 및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리소다. 새삼스럽게 제가 여기서 탈썰 드리지

않어도 결핵이란 어떤 병이며 이로 인하여 희생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는 다 잘 아는 바며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신음하고 있어 국가 사업의 하나로써 막대한 예산을 세워 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세계 보건기구를 통하여 또는 적십자사를 통하여 전 인류의 적인 이 병을 예방 또는 박멸하기에 전력을 경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여기의 일원으로 우리도 그의 일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이다. 속담에 개미 채바퀴 돌듯 한다고 매일 같이 틀에 박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짜증도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환자에게 내대고 화풀이 할 수도 없고 하면 답답한 가슴을 부여 안고 잠시 밖으로 나와 시원한 매기의 공기를 마시면서 대자연에 대고 호소하는 적도 한 두번은 아니다. 환자들은 여러가지로서 자기의 병을 먼저 잘 이해 하고 상식

적인 치료 방법이나 환자가 지켜야 할 여러가지 지식을 잘 알고 오는 소위 지식인 층도 있고 고등교육은 충분히 받고 있으면서도 개성이 특이하여 자기 고집으로 우리들의 치료법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하여주, 저렇게 하여주 하고 우리들을 괴롭히는층, 또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몽매하고 무지한 사람도 있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환자가 오게 되면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이들을 잘 알아 듣도록 타일러서 이해가 가게끔 하여 과연 우리들이 하는 일이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 다시 찾아 왔을때는 처음와서 답답하게 하는 일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들이 정성껏 가르쳐 주고 투약을 하였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치료를 하고 다음에 와서는 여기서 가르쳐 준대로 하여도 하등의 효과가 없다고 노리혀 시비를 걸어 오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치료를 받어서 완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열이 나느니 오후가 되던 머리가 아파 죽겠으니 하고 계속 치료를 받고 가지고 정문 밖에 나가기가 바쁘게 목적 외에 소비하는 참말로 딱한 양체쪽들도 있다. 물론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이 심하면 그리 하라 하고 등정이나 이해가 안가는 바 아니나 자기가 고생 한것을 회고하고 그 약이 지니고

있는 사병과 성질을 생각하여 자기가 노력하여 자활 하므로써 그것을 다른 환자에게 베풀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치료 받게 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 사실을 원조하는 분들이 안다면 그들의 실망은 틀 것이요, 이로 인하여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생각 할때 안타까운 마음 이로 금할 수가 없다.

또 우리 결핵관리소의 자랑인 가정방문을 외국인 보건원과 동행하는 때가 많다. 우리들은 환자들의 주소와 약도를 들고 생소한 집을 찾아서 나선다.

어떤 환자집을 찾아서 가니 아무리 찾아도 주소록에 쓰여진 번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리 저리로 물어서 근 한 시간이나 찾아서 가보니 집이 아니고 토굴이라 왜정 말엽에 공습 대비로 만들어 놓았던 방공호인 모양이다. 그러나 관리소에 왔을 때 의 옷 차림이나 모든것으로 보아 우리 좁은 여자의 마음으로 생각할때 아무리 뒤져봐도 잘못 찾아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당황 하였으나 기왕 찾아온 것이니 확인이라도 해 봐야 하겠기에 주인을 찾았다. 한참 만에 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있고 누구 인가가 나오는 모양이다. 바로 우리 관리소에 계속 치료 받으러 오든 환자이다. 우리들의 모습을 본 환자는 광황하여 어쩔바를 모른다. 말로는 여러번 가정방문을 한다고 들었지만 실사 그렇게 바쁜 管理所에서 집도

잘 모르는 환자 집을 찾아서 다니라고 생각 하였든 모양이다.

막상 마주 서고 보니 자기들의 초라한 살림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도 민망스럽고 그렇다고 오신 손님을 문 밖에 서서 몇마디 인사말이나 하고 돌려 보내자니 딱하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 갈상 싶지도 않고 그때 그 환자의 얼굴색의 변화와 몸 들 바를 몰라 서성거리는 것을 본 우리들은 환자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명을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만이라던 또 모르지만 외국 분도 오셨는데 하면서 근심 하기에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으니 그리 심노(心勞)하지 말라고 누누히 타일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바닥에는 거적을 깔고 그 위에 자리를 깔았으니 습기가 있어 방안이 눅눅하기 한이 없다. 우리들은 그 곳에서 가족들과 같이 앉아서 결핵 예방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 주고 다시 다음 길을 떠났다.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보면 70내지 80%가 빈민들로서 어떤 집은 서서 들어가지 못하여 앞으로 엮드려 기다시피 하여 들어 가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은 마루방에 조그마한 연탄난로 하나 놓고 그 주운 겨울을 썰면서 지내는 환자도 있다.

어떤 여름 날의 일이다. 일기가 좋아서 오늘도 전과 같이 가정방문을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소낙비가 내리

서 환자의 집 근처에 조그마한 판자 집 마루에 의지하고 앉았다가 마루가 부러져서 맨 땅에 떨어졌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그리 튼튼보들이 아닌데 이런 봉변을 당하였기에 그 사이에 갑자기 몸이 붙었나 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러나 쾅쾅해지기는 고사하고 바짝 달려 피로해 보였다. 서로 웃으며 마루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사과 껍질 같은 것을 뜯어서 마루를 깔았는데 그것도 오래 되어서 한 쪽 편이 썩은 것을 보고 서로 쳐다 보면서 웃었다. 그나마 집 주인에게 미안하여 사과하고 변상 하려하니 이 가난한 집 주인은 구지 사양하며 도리혀 우리들이 어데 다 치지나 않았냐고 근심하기에 변상하는 것이 오히려 주인의 호의들 무시하는 것 같아서 간곡히 인사하고 비가霈기기에 그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여러 판자집을 다니다 보면 가정 환경이 하도 곤경에 처하여 그냥 주는 약으로도 치료를 못 하는 환자가 있다. 당초에 생계유지가 되지 못하여 환자에게 영양식은 고사하고 세배의 끼니조차 제대로 끊이지 조차 못하여 얼굴이 퉁퉁부어 있는 것을 간간히 본다.

우리 일행은 보다 못하여 적은 규푼이나마 마련 하여서 미역장사 또는 소금장사, 연탄장사 등등 몇가지 주선을 하여 보았다. 뜻 밖에 그 들의 장사가 잘 되어 다음 번 갔을때는 보티밥이나마 세배를 넘기지는 않는다

고들 한다. 참 마음 한 구석이 허전
하든 것이 없어진 것 같고 무엇인가
조그란 일트서라도 남을 도와 주었다
는 것이 한 없이 기쁘게 느껴 지는
것이다.

한 번은 다섯 살난 어린이에 환자를
만났는데 가서 보니 토굴 속에서 이
루 형용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있
어 이 현상으로는 아이의 치료는 고
사하고 부모가 아사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이 역시 장사 밑천을 매주고 집 환
경을 좀 달리 주선 하였었는데 수 개
월후 아이도 썩 좋아 졌고 들어보니
그때 도와준 것을 기반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상부상조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이
와는 반대로 태조적인 환자도 있다.
너무나 인상에 남고 아직도 기억에
선 하기에 하나만 더 소개할까 한
다. 길 거리에서 구두 짚이 하는 어
린이 인데 우연히 하루는 지나다 보
니 무엇인가 그 전과 달리 주저 주저
하기에 같이 管理所로 데리고 와서
보니 몹시 몸이 쇠약 해지고 결핵초
기였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주
선하여 치료는 물론이고 침식 까지
도 돌보아서 근 일년만에 완치 되었
다. 그러나 그 애는 절름발이로서 불
구이나 잘 하면 불구를 면할 수 있을
정도인것 같아서 管理所 선생님과
의론하고 본원에 누차 수속 하였더

니 다행이 목적이 달성되어서 본원
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였다. 그러나
수술 결과가 여의치 않아서 수술전
보다 더 나빠 지지나 않았나 하고
떡 근심 하였었다. 만일 수술 전보
다 나빠진다면 나의 성의는 온데 간
데 없어지고 두고 두고 그 원망을 어
떻게 듣나 하고 생각하니 공연한 일
을 했구나 하고 좁은 마음을 얼마나
배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간곡한 간호와 치료로서
참 힘이 든다는 과정을 무난히 넘겨
얼마 후 퇴원하게 되었다. 생의 보탄
을 얻은 이 소년을 좀더 키워 보고
싶고 그냥 내버려 두면 소년의 장래
도 근심되거니와 노르웨이 보건원에
협조를 얻어 다소의 무리를 무릅쓰
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다. 근 1
년을 계속 하다 보니 나의 힘으로 더
이상 지탱 하기가 곤란하여 본인에
게 그 뜻을 알리고 잠정적으로 그냥
계속하되 고향하는 방법이 있지 않
느냐 하고 연구 해보라고 넌즈시 말
하였드니 그 말하고 몇 일이 지나서
부터는 통 소식이 없지 않는가. 그후
부터는 영 만나지 못 하였다.

그러든 어느날 노상에서 우연히
만났다. 나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
른다. 이름을 부르며 그 사이 어땠
었느냐, 그래 어떻게 지나느냐고 못
만난 동안의 일 들을 알고 싶고 중
금하여 하나 하나 물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속 시원히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당신이 무어길래 남의

사생활면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며 알려져 하는가 하는 식의 태도로서 물어 보는 내가 도리히 민망할 정도로 나를 대한다. 그래도 몇해의 정이 있다 보니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하여 나이가 어려서 그렇거니 하고 달래며 이야기 하고 정녕 오늘 말할 생각이 없으면 후에라도 좋으니 자주 연락 해달라고 당부하고 가든 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나서는 한번도 연락이 없다. 어쩌다 길가에서 한 두 번 만났는데 이번에는 전번 보다는 더 쌀쌀하다.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답답 하기도 하였다. 그후로는 토상에서 만나도 그저 스치고 지나갈 뿐이다. 이렇게 그날 그날을 지낸다. 또 우리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환자들은 사회사업반에 의뢰하여 구호하도록 한

다. 거기서도 역시 안타까운 비명은 연신 나온다. 심지어는 집을 주선하여 생계를 늘 보아 주고 하였는데 집을 주선하여 쓴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이사하고 영영 오지 않아서 사후 사무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들 보건의원은 어디까지나 환자의 치료 및 예방을 최고의 임무로 알고 이에 전념 하는 것이 원칙이 겠지만 항상 딱한 사정을 톺다 보면 거기에 이끌려 난처한 처지에 도달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일로 오늘 하루해도 저물어 간다. 땀수아 위에 나와 불비는 뺨스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스쳐간 여러가지의 일들을 되새기며 피로한 몸을 뺨스안으로 이끈다.

육 아 와 간 호



귀여운 자녀들의 이해와 올바른 지도를 원한다면, 아동의 심리를 다루고 성장발육을 자세히 기록한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Gladys Sellew
Marry F. Peppe 공저
홍 옥 순 역

模造 高級 洋裝 菊版
어 육아와 간호는 초판에는 「소아
간호」로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장래에 어머니가 될분이나 이미 퇴
신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재산!

값 일반가 300원
학생가 210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발행